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나는 의사

박현경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닌, 의사다.
출산 직후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앞으로는 건강할 날만 있으라고, 정성을 다해 진료하는 신생아 전담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를 만나보았다.**

글. 최소희 사진. 박찬혁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선 매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흔히, 신생아라고 하면 이제 막 태어나,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다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생아를 돌보는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예측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놀라운 호전을 보여주는 신생아야말로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는, '강한' 존재라고 말한다. 모두가 어려울 거라고 말했던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나 천사 같아요. 그 순진무구한 얼굴 안에 짐작할 수 없는 강한 힘을 느낄 때면 새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신생아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날 것 그대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세 명의 신생아 전담 전문의가 돌아가며 아이들 곁을 지킨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친부모조차 아이 얼굴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정말 '제 자식같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뱃속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생아 전담 전문의가 '두 번째 엄마'가 되어주는 셈이다. "예전에는 매일 혼자 밤을 새느라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 명의 전문의가 총원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이들도 더욱 섬세한 케어를 받고 있죠.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건강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무거워지는
어깨

현대 사회에서 여성과 출산을 둘러싼 많은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박 교수의 역할 또한 막중해지고 있다. 실제로 고령 산모의 증가, 인공수정으로 인한 다태아 임신 등으로 인해 임신 기간인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출생하는 이른둥이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심대 출산, 기형 등 다양한 이유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이 그녀를 찾아온다.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유독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엄마 뱃속에 있어야 할 시간을 다 못 채우고 나온 한 이른둥이가 생각나네요. 양수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시기에 분유를 먹이니 소화가 안 될 수 밖에요. 배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이 위험한 지경이었죠. 개복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마

한양
공대와의
협력으로
의료 시스템
개발

저도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부모님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까지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들을 설득하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 가기 전에 상황이 해결되어 정말 떨 듯이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한양대학교 MEB글로벌 발달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다. ‘MEB’는 의학(medicine), 공학(engineering), 바이오(bio)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아동발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한양 공대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운드 스케이프 VR 플랫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진료 시스템, 치료 도구로서의 인공지능/로



(왼쪽부터) 박현경 교수, 배선화 간호사

봇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료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중심에 위치한 HIT 건물 발달센터 사무실은,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하는 장소예요. 사무실이 병원과 대학 중간지점에 자리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등 언제나 쉽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의사의 경험에 의존해왔던 진단과 치료 과정에 공대의 기술을 접목해 정확하고 빠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를 위해 병원과 대학 연구진들이 직접 만나 수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은 한양 MEB글로벌 발달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열정을 토대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아동발달 분야의 연구를 위해
병원과 대학 연구진들이
직접 만나 수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은
한양 MEB글로벌 발달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